오늘은 해님 오려나 바라본 창문가에는

해님이 얼굴 내밀고 안녕하며 인사하네요

콩닥콩닥 두근두근두근 누구부터 안아줄까

풀잎사귀 열매들 살포시 품어줍니다

온 세상 큰 사랑으로 골고루 고루 사랑해주니

앞마당 방글방글 웃음꽃 피어나요

온 세상 환한 빛으로 아름답게 오색 칠하는

해님 사랑이 가득해요

모락모락 따끈한 밥 밥솥 운전사 우리아빠

뽀글뽀글 된장찌개 뚝배기 요정 우리엄마

돌돌돌돌 달걀말이 (돌돌돌돌 달걀말이)

아삭아삭 배추김치 (아삭아삭 배추김치)

매콤달콤 빨간 불고기 길쭉이 콩나물 초록시금치

와~! 맛있겠다! 잘먹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가득 모락모락 따끈따끈 행복밥상

사랑향기 가득한 뽀글뽀글 따끈따끈 행복밥상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가족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가득 모락모락 따끈따끈 행복밥상

사랑향기 가득한 뽀글뽀글 따끈따끈 행복밥상

뽀글뽀글 따끈따끈 행복밥상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빨간 글씨 떡볶이 집

김이 솔솔 얼큰한 맛 발걸음이 절로 가요

호호불어 입에 물고 친구들과 수다 떨면

콧등 땀이 송송 입속이 얼얼 맛있는 떡볶이

너 호호 나 호호 불어주며 친해지는 마음

어른이 된다 해도 잊을 수 없을 거야

잊을 수 없을 거야 또 먹고 싶다

보슬보슬 비 오는 날 꼬마 달팽이 한 마리가

무거운 집을 지고 천천히 가누나 느릿느릿 기어간다

꼬르르륵 꼬르르륵 울리는 배꼽시계

꼬르르르륵 꼬르르르륵 배고픈 꼬마 달팽이

여기저기 둘러보니 배추밭이 있더래

신이 난 꼬마 달팽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네

신이 난 꼬마 달팽이 신이 난 꼬마 달팽이

신이 난 꼬마 달팽이 덩실덩실 춤을 추네

신나게 놀아보자 얼쑤 좋구나

하마하마 춤춰라 느 할애비 개똥밭에 장구치고 논다

요뿔내고 춤춰라 조뿔내고 춤춰라 솔솔이 나오너라(얼쑤)

톡톡 톡톡 톳기만 허곡

고놈의 궤기 첨 고놈의 궤기 첨

이레 화륵 저레 화륵

잘도 돌아댕겸쩌 첨

어떵 허코 어떵 허코

그냥 확 동겨보아신디

요놈 보라 요놈 보라

옆댕이에 걸려부럿쩌

톡톡 톡톡 톳기만 허당

고놈의 궤기 첨 고놈의 궤기 첨

불쌍허다 안돼부럿쩌

고놈 안돼부럿쩌

끈적끈적끈적 질퍽질퍽 찍찍

걸음걸음 마다 발은 쑥쑥쑥쑥쑥

물컹물컹물컹 미끌미끌 뽁뽁

나를 끌어당긴 진흙 블랙홀

진흙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신비한 갯벌 비밀 찾아 떠날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떨리지만 숨 한번 크게 쉬고

조심조심 손바닥을 펴보니 진흙덩이만 가득

그렇지만 실망 않고 계속계속 진흙 속 찾아보자

이번에는 정말정말 내 손에 예쁜 조개 하나

코밑에는 진흙 옷 속에도 진흙

갯벌 진흙과의 특별한 하루

아이스크림 좋아 냉장고 자꾸 열면 빙하가 녹잖아 펭귄이 싫어해

무심코 켜 논 컴퓨터 때문에 지구가 아파 울고 있어

물놀이 좋아 수도꼭지 자꾸 틀면 바다가 더워져 고래가 싫어해

무심코 켜 논 형광등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워 더워 더워 지네

지구는 벗을 옷도 없는데 자꾸만 덥게 하면 안 되는 데

자전거 타고서 달려보자 우리 지구 시원하게

지구는 벗을 옷도 없는데 자꾸만 덥게 하면 안 되는 데

나무 한 그루 심어보자 우리 지구 시원하게

잠자리 잠자리야 나리꽃에 앉아라

앉던 자리 앉아라 빙빙 돌아서

마음놓고 쉬어라 빙빙 돌아서

그쪽으로 날아가면 낭떠러지다

너무 높이 날지 마라 제비 따라 온다

빨강 꽃에 앉지마라 거긴 뜨겁다

너무 멀리 날지마라 집 못찾아 온다

잠자리 잠자리야 나리꽃에 앉아라

앉던 자리 앉아라 빙빙 돌아서

마음놓고 쉬어라 빙빙 돌아서

어디선가 날 자꾸 부르는 소리 걷다가 둘러보니 옛날 우리 집

장미꽃 핀 울타리 붉게 웃고 강아지 쪼르르 달려나올 것 같아

나는 가만히 대문을 밀어보았네

대문 틈으로 고이는 어머니의 자장가

무등 태워 주시던 아빠의 어깨 꿈처럼 살며시 다가옵니다

내 눈 속에 흐르는 새하얀 구름 옛날이 아련히 다가오는 집

1 나비 등을 타고 꽃밭에 갔더니

내게 꽃처럼 살아가래요

산새 등을 타고 숲속에 갔더니

내게 산처럼 살아가래요

그윽한 향기 뿌리고

방긋 웃음 띠우며

무겁게 앉아 멀리 바라보고

푸르게 살아가래요

나비 등을 타고 꽃밭에 갔더니

내게 꽃처럼 살아가래요

산새 등을 타고 숲속에 갔더니

내게 산처럼 살아가래요

2 물새 등을 타고 바다로 갔더니

내게 바다처럼 살아가래요

바람 등을 타고 하늘로 갔더니

내게 해처럼 살아가래요

가슴에 푸른 물결 치면서

진주를 키워가래요

온 세상 아름답게 밝혀주는

해처럼 살아가래요

물새 등을 타고 바다로 갔더니

내게 바다처럼 살아가래요

바람 등을 타고 하늘로 갔더니

내게 해처럼 살아가래요

랄라라라 랄라 랄라라라 랄라

랄라 랄라라 랄라라라라

1 아빠가 웃으실땐 하하(하하하하)

듬직한 사자같고요(어흥어흥)

엄가가 웃으실땐 호호(호호호호)

포근한 양 같아요

랄라라 랄라 랄라 랄라랄라라 우리가족 멋지죠

행복한 웃음이 조르르 내렸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예쁜 꽃길처럼

정다운 사랑 함께 나눠요 팔벌려 환영합니다

우리집으로 놀러오세요 우리집은 동물원

2 오빠가 웃을때는 헤헤(헤헤헤헤)

철없은 원숭이 같고(키득키득)

내가 웃을때는 히히(히히히히)

귀여운 토끼래요

랄라라 랄라 랄라 랄라랄라라 우리가족 멋지죠

행복한 웃음이 조르르 내렸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예쁜 꽃길처럼

정다운 사랑 함께 나눠요 팔벌려 환영합니다

우리집으로 놀러오세요 우리집은 동물원

헐렁헐렁 고무바지에 꽃무늬 티셔츠 입은

언제나 바쁘신 아줌마~ 오늘은 무슨일로 바쁘실까

잔소리 대장 건망증 대장 아줌마는 왜 이런 걸까

그래도 무슨 일이든 척척 용감한 아줌마

\*우리엄마 이름은 아줌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름

비가와도 눈이 와도 엄마는 달려간다

만세 만세 우리 엄마 만만세

만세 만만세 엄마 만세 사랑해요 우리 엄마

\*우리엄마 이름은 아줌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

비가와도 눈이 와도 엄마는 달려간다

우리 엄마 만세! 엄마 만세!!

망토와 요술모자 쓰고서 마법학교의 교복을 입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 학교에 도착했어요

수리수리수리 지팡이를 돌리면

친구들 마음마다 꽃웃음이 퐁퐁

기쁜 일도 함께 슬픈 일도

마법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웃음소리 마법가루 반짝반짝반짝 반짝

신기하고 행복한 상상의 세상

우정과 사랑이 가득한 학교

우리들 우정의 마법이 가득한 학교

웃음소리 마법가루 반짝반짝반짝 반짝

신기하고 행복한 상상의 세상

상상의 세상(빰빰빰빰빰빰빰)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로를 위해주는 세상

사랑한단 말 주고 받으며 세상에 불을 밝히자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친구는 소중한 보물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보물을 환하게 빛내주는 건

역시 사랑이죠 역시 사랑이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

사랑한단 말 주고 받으며 세상에 불을 밝히자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친구는 소중한 보물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보물을 환하게 빛내주는 건

역시 사랑이죠 역시 사랑이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

사랑한단 말 주고 받으며 세상에 불을 밝히자

사랑의 환한 빛으로 사랑의 환한 빛으로

1 요콩 내콩 조그만 콩

고운 흙 속에 심었으니

아기 손 같은 떡잎 나고

줄기 더욱 힘을 내어

하늘 하늘 저 하늘에

쑥쑥 자라 올라나 볼까

이영차 영차(이영차 영차)

뿌리를 내려라 힛!(뿌리를 내려라)

잎을 내어라 힛!(잎을 내어라)

줄기를 뻗어라 힛!(줄기를 뻗어라)

꽃을 피워라 힛!(꽃을 피워라)

콩꼬투리 다 열렸네 요콩 내콩!

2 똑 떨어진 꽃자리에

콩 꼬투리 열렸으니

요콩 내콩 알콩 달콩

서로 서로 노나 먹고

백년 천년 천년 만년

오래 오래 살아나볼까

이영차 영차(이영차 영차)

뿌리를 내려라 힛!(뿌리를 내려라)

잎을 내어라 힛!(잎을 내어라)

줄기를 뻗어라 힛!(줄기를 뻗어라)

꽃을 피워라 힛!(꽃을 피워라)

콩꼬투리 다 열렸네 요콩 내콩!

열려라 열려 신비의 바닷길

바닷속에 숨어있는 길

열려라 열려 신비의 바닷길

바다를 걸어가는 길

하루에 한 시간 기적이 일어나

바다의 비밀이 드러난다

바다야 갈라져라 바다야 열려라

태양과 달이 허락한 시간

바닷길이 만나는 시간

열려라 열려 신비의 바닷길

바닷속에 숨어있는 길

열려라 열려 신비의 바닷길

바다를 걸어가는 길

바다를 걸어가는 길

즐거운 점심시간 끝나고 5교시 수업시간

스르르 스르르 눈꺼풀이 내려오고

선생님 목소린 자꾸 작아지고

눈 앞에 녹색 칠판 흔들흔들흔들 왔다갔다

어느새 내 이마가 책상위에 닿으면

달콤한 꿈나라

조금씩 다가오는 선생님의 발자국

그러다 내 머리에 알밤 콩콩 군밤 콩콩

교실 안 가득 퍼지는 친구들 웃음소리

놀라 잠 깨어보니 웃고 계신 선생님

지금은 나른나른 우리반 5교시 수업시간

그래도 사랑의 웃음꽃 피어나는 즐거운 교실

언제나 사랑해 즐거운 교실

1 동글동글 새콤달콤 입 안에 한가득

아버지께서 사다주신 새콤달콤 포도 한 알

보랏빛 향기 포도 한 알 입 속으로 쏘옥

요리조리 입 속에서 미끄럼틀 타다가

어쩌지 어쩌지 어쩌지 씨까지 삼켜 버렸네

어쩌지 어쩌지 어쩌지 포도나무 자라면

2 사각사각 시원달콤 입 안에 한 가득

어머니께서 썰어주신 시원한 수박 하나

초록빛 향기 수박 하나 입 속으로 쏘옥

요리조리 입 속에서 미끄럼틀 타다가

어쩌지 어쩌지 어쩌지 씨까지 삼켜 버렸네

어쩌지 어쩌지 어쩌지 수박이 자라면

모두가 일등을 좋아해요(우리보고 일등만 하래요)

영어 일등 수학 일등 운동도 일등

하지만(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일등은 그런 일등 아니에요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어깨동무 일등

하하하하 밝게 웃기 일등 세상도 밝아져요

마음모아 친구돕기 일등 힘든일도 이겨내요

가꾸고 돌보기 일등 우리손길 닿는 곳 마다

예쁜꽃 활짝 웃음꽃 활짝 피어나요

우리도(우리도) 일등을 좋아해요 (혼자하는 일등은 아니죠)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어깨동무 일등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어깨동무 일등

달빛 밝은 은빛 겨울 저 멀리

반짝이는 어린 왕자별

흰 눈 소복소복 쌓이면

아기별 내려와서

어린왕자 사랑했던

예쁜 꽃 이야기를

예쁜 꽃을 사랑했던

어린왕자 얘기를

눈꽃송이 별꽃송이

반짝반짝 피어나듯

소곤소곤 들려주는

아름다운 겨울밤

어린왕자 이야기

밤 하늘 별빛 반짝 일때면 문득 생각이나요

내가 힘이 들때 손잡아 주시던 따스한 그 손길이

아무 말 하지는 않아도 눈빛 속에서 느껴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자꾸자꾸 생각나 울 것 같아요.

밤 하늘을 보던 나의 눈 속에 별빛이 흔들려요

이젠 나도 알죠 아빠 마음을 아빠 사랑해요

제27회 MBC창작동요제 <대상, 2009년>

널따란 잎사귀 사이로 살짝 내민 얼굴

빠알간 아기 토마토 참 귀여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방울방울 노래하고

사이좋게 짤랑짤랑 거리는 동생닮은 귀여운 토마토

널따란 잎사귀 사이로 예쁘게 내민 얼굴

탱그르르 익은 귀염둥이 참 귀여워

1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라

저 넓은 벌판을 달려보라

우리는 하나 모두 하나 하나가 되자

해님도 하나 달님도 하나

아름다운 금수강산 오로지 하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손에 손 잡고서 노래하자

우리는 하나 모두 하나 하나가 되자

2 저 높은 산위에 올라보라

저 넓은 바다를 바라보라

우리는 하나 모두 하나 하나가 되자

해님도 하나 달님도 하나

새파란 동해 바다 오로지 하나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고

손에 손 잡고서 춤추자

우리는 하나 모두 하나 하나가 되자

차가운 겨울님 눈바람 두려워

얼음! 얼음! 외치고 흙이불 아래 누워

따뜻한 봄님이 산들바람 손으로

땡! 하고 쳐주니 사르르르 사르르르 녹아요

쏘옥 쏘옥 고개를 하나 둘씩 내밀고(쏘옥!)

요리조리 두리번 겨울없나 살펴요

봄님이 땡! 하면 살아나는 새싹친구

꽃님도 우리도 같이해요 새싹나라 얼음! 땡!

새싹나라 얼음! 얼음! 땡!

쪼로롱 째액짹 찌르르 뽀로롱 포르르 호로롱

쪼로로롱 째액짹 찌르르 찌르 뽀로롱 포르르르 호롱 호롱

새들 모두 모여 숲속 동산에서 화음 맞춰 정답게 노래해

쪼로롱 째액짹 찌르르 뽀로롱 포르르 호로롱

숲속 동산 가득히 울리는 노래 새들의 합창 소리 쪼로롱

친구야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면 내가 너에게 구름이 되어줄게

친구야 보슬보슬 비오는 날이면 내가 너에게 우산이 되어줄게

내가 기쁠땐 함께 웃고 내가 슬플땐 함께 울고

나는 너에게 사랑스런 선물이 되어주고 싶어

친구야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면 내가 너에게 구름이 되어줄게

친구야 보슬보슬 비오는 날이면 내가 너에게 구름이 되어줄게

하늘 향해 돌아라 이리보고 저리보고

땅을 짚고 돌아라 오금질 하면서

벙거지 쓰고 소고 치고 상모를 돌려라

앉았다 일어섰다 소고춤 추어라

꽹과리 따라 징 따라 줄 맞춰 돌아라

장구 따라 북 따라 장단을 맞춰라

동그라미 그리며 이리보고 저리보고

한발 한발 걸어라 오금질 하면서

하늘에 그림 그리면서 상모를 돌려라

어깨를 들썩이며 소고춤 추어라

오른발 차고 왼발 차고 줄 맞춰 돌아라

덩 덕쿵덕 쿵 덕쿵 장단을 맞춰라

서당개가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단다

아무리 무식한 자라도 유식한자 함께하면

맹모삼천지교의 뜻을 안단다

까막눈 아이야 이 뜻을 아느냐 곱하기와 나누기 어렵지만

선생님 가르치심을 계속해서 열심히 듣다보면

구구셈을 능숙하게 언젠가는 반드시 알 수 있지

이이는 사 이삼은 육 이사 팔 구구셈 쉬워요

서당개가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단다

한락산 철쭉으로 곱닥헌 옷을 입고

너른 뱅듸 유채꽃으로 멍석을 페우는 아~ 4월

나비는 하올하올 춤추멍 날아오곡

봄 보름은 돌담 우트레 부영케 부는 아~ 4월

호랭이질광 범벅 싸움에 밤 새낭 울당

저 하늘에 올라 강 별이 된 님들

그랑그랑 허던 눈물 별이 된 벨롱벨롱

그리운 님들이 우리를 직허잰 저 하늘이서 벨롱

저 하늘이서 벨롱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어느 깊은 산속에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 배가 고파 어슬렁

지나가던 떡장수 아지매 호랑이를 보고 깜짝놀라

지나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어흥하며 무서운 호랑이

하는 말 좀 보소

``어허! 떡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불쌍하고 불쌍하다 호랑이 기세는 어딜갔나

옜다 떡 먹어라 배고팠느냐 떡 하나 먹고 힘내거라

공부 안하다고 꾸중 듣고 이불 쓰고 울었어

꿈나라로 갔죠 방학 때 놀던 외갓집 앞마당

빗자루 타고 동화속 주인공이 되어 하늘을 훨훨 날아

먼 앞날의 나를 만났죠 오! 멋지고 훌륭한 사람

할머니 말씀이 딱 맞아 하고픈 일 즐겁게 하면

그런 내가 될 거야 그런 내가 될 거야

빗자루 여행 희망의 여행 사랑의 여행 야호 야호

빗방울이 똑똑똑 소리맞춰 똑똑똑 입을 모아 노래를 해요

아빠엄마 뚜두둑 아이들은 또도독 재미있게 노래를 해요 랄랄라

떨어지는 빗방울 모두 모여라 우리 모두 다함께 똑똑똑똑똑

크게 한번 뚝뚝뚝 작게 한번 토도독 리듬맞춰 노래를 해요

빗방울의 노래가 멀리멀리 퍼져요 아름다운 빗방울소리 똑똑똑

지쳐 있을 때 외로워하고 있을 때

가만히 다가와 축 처진 내 어깨를 토닥토닥

마음 아프고 걱정 되는 일 생길 때

조용히 찾아 와 내 손을 꼭 잡아 주던 너

네가 있다면 함께만 해 준다면

환하게 웃어 보여준다면

나는 힘이 날 것 같아

다시 일어서 볼게

한 번 용기 내 볼게

너는 내게 꼭 필요한 새콤달콤 비타민이야

낮은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물결

발 아래로 펼쳐진 파란 호수에

하늘 그린 물위로 산 그림자가

인사를 하러온다

붕어를 닮은 자그만 섬 하나가

그림처럼 떠 있는 곳에

붕어섬을 감싸 안은 물안개

햇살 타고 피어오르면

물 내음 꽃 내음 가득한

아침호수 건너에

아득히 보이는 마을에선

밥 짓는 연기가 난다

추운 겨울 기다리다가 햇살 엄마가 끄덕이면

봄이 신난다면서 온 세상 그림 그려요

알록 달록 꽃그림 초록산과 뛰노는 토끼

돌아보면 파란하늘 노래하는 작은 새

따뜻한 물감으로 봄이가 그린 세상

나도 따라 도화지속에 그림을 그려요

담밑에 앉아서 쳐다보면

별도 뵈고 꽃도 뵈고

수많은 별들은 하늘의 꽃

꽃들은 이 땅의 별

꽃들이 예뻐서

별들은 안자요

별들이 예뻐서

꽃들도 안자요

초승달이 넘어가네

밤새들도 잠들었네

보랏빛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에게

내 이름 지어주면

밝게 빛내며 온 밤하늘을 다돌고

내게 돌아오겠지

검은 하늘에서 번지는 은하수에게

내이름 불러주면

모든 세상이 내이름 듣게 되겠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예쁜 내 이름

엄마 아빠가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하늘 넓게 넓게 퍼지는 멋진 내 이름

내가 그리는 나의 꿈

별빛 이름

펑퍼벙 펑펑(퍼벙펑)

뿅뾰봉 뿅뿅(뾰봉뿅)

아기 봉오리가 옥수수 기둥처럼

삐죽삐죽 솟아나더니 (펑펑펑펑)

밤새 달님이 맛있게 튀겨

팝콘을 해 놓았나봐요

하얗고 부드런 빛깔로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풍기며

조롱조롱 나뭇가지에 매달렸다가

우르르 나에게로 쏟아질 것 같아요

펑퍼벙 펑펑(퍼벙펑)

뿅뾰봉 뿅뿅(뾰봉뿅)

펑퍼벙 펑펑(퍼벙펑) 뿅뾰봉 뾰봉

길가던 강아지 벚꽃 팝콘 먹고싶다

멍멍멍 짖으며 쫄랑쫄랑 따라오네요

여름 햇살 실컷 먹고

토실토실 자란 밤톨이

가을 햇살 맘껏 먹고

탱글탱글 여문 밤톨이

가시 송이 사이로 살짝 얼굴 내밀고 세상 구경

파란 하늘 예쁘구나 맑은 공기 시원쿠나

알록달록 나뭇잎 시냇물 좋구나

빨간 감이 익었구나 대추 열매 탐스럽다

가을 세상 풍성한 세상 좋구나

바깥 세상 맘에 들어

얼른 나가고 싶은 밤톨이

우리가 가꾼 아름다운 세상

밖으로 나온 밤톨이

세상 구경 나온 밤톨이

봄이 오면 꽃바람

여름 오면 싱그런 바람

가을 오면 오색바람

겨울이 오면 은빛바람

달빛담긴 바람의 향기

풀벌레 울음담은 바람의 향기

꽃향기 담고 별빛 한조각 담은

바람의 향기 느껴봐요

바람이 흐르는 길을 우리함께 걸어봐요

꿈향기 가득한 바람 찾아 떠나요

바람이 잠시 머무는 그 곳에

우리의 아련함을 담을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 하늘에 닿으면

모두의 가슴이 그립고 또 그리워

너의 얼굴은 항상 웃고 있지만

나는 바다를 맴돌고 있는데

바람아 이젠 여기 머물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달래주렴

바람아 이젠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약속을 전하여 주렴

언제나 기다릴게 그 날은 올 거야

바람이 빛이 되는 그 날

너의 얼굴은 항상 웃고 있지만

나는 바다를 맴돌고 있는데

바람아 이젠 여기 머물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달래주렴

바람아 이젠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약속을 전하여 주렴

언제나 기다릴게 그 날은 올 거야

바람이 빛이 되는 그 날

바람이 빛이 되는 그 날

1 너를 바라보며 가만히 하얀 미소 지어본다.

밀려오는 파란마음이 살며시 내게 다가와

그리움이 노래되어 내 맘속에 머물고

한없이 너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넓어진단다.

바다야 푸른 바다야 너를 닮고 싶단다.

바다야 푸른 바다야 언제 언제까지나

2 너를 바라보며 살며시 하얀 소망 띄워본다.

밀려오는 파란 꿈들이 살며시 내게 안겨와

새 희망의 씨가 되어 내 맘속에 자라고

속 깊은 너를 보면 너만큼 생각이 깊어진단다.

바다야 푸른 바다야 꿈을 이룰 때까지

바다야 푸른 바다야 언제 언제까지나

햇살 좋은 화창한 날 배낭을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잡고 바다로 떠나보자

복잡했던 도심 속을 벗어나

초록빛깔 불어오는 멋진 바닷가로

금빛모래 은빛모래 반짝이는

시원한 바람 불어오는 멋진 바닷가

(바다야 나랑 친구할래? 정말 그래 좋아)

갈매기야 같이 놀자 파도타기 함께 해보자

조개잡기 수영놀이 모래성 쌓기

너무 너무 즐거워

바다는 좋은 친구

바다야 함께 놀자 (좋다)

일곱빛깔 무지개 아름다운 하모니

우리들도 하나되어 하모니를 이뤄요

빨주노초파남보 다른 빛깔이지만

서로 마음 모아서 하모니를 이루죠

우리들의 모습 모두가 다르지만

마음의 문 열고 한 마음 이루어요

서로 감싸주고(감싸주고)

서로 아껴주는(아껴주는)

무지갯빛 고운 하모니

우리함께 만들어요 무지갯빛 하모니

혼자서는 할 수 없어 함께 꿈을 이뤄요

너와 내가 손 잡고 희망의 꿈 펼쳐요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무지갯빛 하모니

무지갯빛 하모니 만들어요

1 아빠 입에서 나온 말이 혼내줄 거야

그 말이 뚜벅뚜벅 걸어서 내 몸 속으로 들어왔다

혼날 줄 알아 혼날 줄 알아 혼날 줄 알아 혼나

혼내 혼내 혼내 혼내 혼내 혼내 혼내 혼내 혼내 혼내

말들이 부딪히고 쓰러진다 마음이 휘청거린다

2 아빠 웃으며 하는 말이 사랑한단다

그 말이 떼구르르 굴러서 내 몸 속으로 들어왔다

사랑한단다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

사랑사랑사랑 사랑사랑사랑 사랑사랑 나의 사랑

말들이 꽃이 되어 피어난다 마음이 활짝 펴진다

고맙습니다 감사함니다 죄송합니다 예예예예

고개숙인 벼이삭처럼 겸손한 말은

너와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다리

해 본적이 없어요 할 줄 몰라요 그건 왜 해요 노노노노노

도전 정신도 용기도 없는 말은

우리 꿈의 날개짓을 포기하는 말

잘한다 수고했다 넌 할 수 있어

햇살같은 칭찬과 격려의 말은 웃음되고 힘이되는 말 아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씨앗도 없는 말이지만

가시가 되는 말 노노노노노 기쁨 주는 말을 하자

내가 하는 말에 향기를 담아 희망 담아 선물하자

사랑담아 선물하자

까만 옷을 입고서 아장아장 걷지요

한발 두발 천천히 호기심 가득한 발걸음

요리조리 보아요 두 눈은 반짝반짝

모든 것이 궁금해 온 세상 나의 놀이터죠

얼음나라 푸른 바다 거북이 친구와 손을 잡고

느릿느릿 뒤뚱 재미난 걸음마

아름다운 바다 별 신기한 산호 숲을 지나

황금날개 활짝 펴고 바다를 날아요

느릿느릿 천천히 한발두발 뒤뚱

꿈을 꾸며 걸어요 푸른 꿈을 이룰래요

쿵덕쿵덕 치는 떡

지글지글 지지는 떡

보글 보글 삶는 떡

모락모락 찌는 떡

달 밝은 보름에는 재앙을 막는 약식

쿵쿵쿵덕쿵 떡을 만들어보자

우리아기 백일에는 백살을 살라고 백설기

쿵쿵쿵덕쿵 떡을 만들어보자

새해농사 잘되라고 알이 꽉찬 송편

쿵쿵쿵덕쿵 떡을 만들어보자

찰떡같이 살라고 혼인에는 인절미

쿵쿵쿵덕쿵 떡을 만들어보자

쿵쿵덕쿵 쿵쿵덕쿵 떡을 만들어보자

쿵쿵덕쿵 쿵쿵덕쿵 떡을 만들어보자

꼬물 달팽이 꼬물꼬물 꼬꼬물 꼬물꼬물하여 나아간다

이슬비 촉촉 꽃덤불 덩굴 위로 꼬꼬물 하루종일 여행을 간다

더듬이 꿈틀꿈틀 고갤 요리조리 살피며 꼬물꼬물 꾸물 미끌미끌

저 높은 꽃잎에서 보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울까 궁금해

(궁금해!)

잎사귀에서 쉬었다 가려나봐 그러다 배고픈지 한입 사각사각

온종일 여행 피곤해 한숨 잘래 내일도 꼬물꼬물 길 떠나야지

꼬꼬물 달팽이의 끝없는 여행

밤하늘 열 두 줄 달빛모아 하늘나라 선녀가 매어놓은

달빛가야금 현을 따라 둥당동지 현 울리네

수많은 반딧불이 둥근 가락 춤을 추는

하늘 사이 땅 사이 가얏고 노랫소리

둥당청흥둥당동 청아한 소리 달빛가락 담긴 소리

둥당동기당칭지 청흥둥당동 달빛 가야금

청아한 소리 둥기당당 달빛가락 담긴 소리

둥당동기당칭지 청둥당동

달빛가야금 하늘소리 가얏고 소리

나무에서 이리저리 먹이를 찾던 다람쥐 한 마리

요리조리 조리요리 눈을 굴리다가

쪼르르 내려왔어요

숲속 오솔길에

굴러온 도토리 주우려고

이쪽저쪽 살피다 내 눈 마주쳤어요

라라라

주울까 말까 망설이다

숲속 멀리 달아나버려요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

숲속 멀리 달아나버려요

나무에서 이리저리 먹이를 찾던 다람쥐 한 마리

요리조리 조리요리 눈을 굴리다가

쪼르르 내려온 다람쥐

한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정겨운 말

한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다섯글자 예쁜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마음의 약속 꼭 지켜볼래요

한손 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말 정겨운말

한손만으로도 세어볼수 있는

다섯 글자 예쁜 말

친구들아, 놀이하자

모두 함께 놀이하자

1 공기놀이 놀이하자

조심조심 던지다 보면

한알 두알 세알

그러다 놓치면 내 차례다

2 제기차기 놀이하자

헐렝이 양발 번갈아가며

땅에 떨어지면 안된다

누가 더 많이 차나 겨뤄보자

3 소꿉놀이 놀이하자

풀과 흙은 점심식사

여보 당신 엄마흉내

우리는 앞으로 소꿉동무

4 연날리기 놀이하자

방패연 가오리연 모두 날리자

어이쿠 나무에 걸렸네

엉엉 내 동생 슬피 우네

깊고 작은 산꼴짜기 사이로

맑은 물 흐르는 작은 샘터에

예쁜 꽃들 사이에 살짝 숨겨진

이슬 먹고 피어난 네잎클로버

랄랄라 한 잎 랄랄라 두 잎

랄랄라 세 잎 랄랄라 네 잎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수줍은 얼굴의 미소

한줄기의 따스한 햇살 받으며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친구야

빛처럼 밝은 마음으로 너를 닮고 싶어

푸른 나무 언덕아래 은빛고운 모래밭을

작고 귀여운 아기새 발자국 남기며 걸어요

꽃나라 바람에 살랑살랑 실려온 이야기들과

고운파도들 모여 들려주는 하얀 꿈방울 노랫소리

내 눈에 담은 은빛 물결 내 맘에 담은 푸른 파도

바다가 나에게 들려주는 푸른 희망의 노래

잠든 세상 깨우는 노랫 소리가 들려요

파란하늘 웃음 가득 싣고 빛이 되어요

두근 두근 설레는 마음 담아 부르는

새콤 달콤 노랫소리 따라 꿈이 열려요

노래로 꿈꾸는 행복한 세상

내마음이 즐거워져요

노래로 나누는 따뜻한 마음

우리함께 불러 보아요

잔잔한 호수 위에 앉은 노랑부리 하얀새가

햇살이 머문 물가를 돌며 저 멀리 물을 타죠

새하얀 물거품이 일어 호숫가 맑게 퍼져가면

억새풀 숲속에 잠자던 바람 하얀새와 노래하죠

큐우큐우 큐우우 노랑부리야 노를 저어

큐우큐우 큐우우 울려퍼지는 노랫소리

풀벌레 작은 날개짓까지 고운 노래되죠

호숫가에 가득한 꿈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짜증나고 (짜증나고) 힘든 일도 (힘든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꿈이 크고 고운 마음이 자라는

따뜻한 말 넌 할 수 있어

큰 꿈이 열리는 나무가 될래요

더없이 소중한 꿈을 이룰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자! 연줄을 풀어 세상구경 한번 해볼까나

연줄에 연을 층층이 이어 달고

바람따라 나는 연아 멀리 멀리 날아라

연줄에 연을 층층이 이어 달고

구름따라 나는 연아 높이 높이 날아라

내 마음도 너를 딛고 올라 올라 올라가

산바람도 만나고 강바람도 만나고

내 마음도 너를 딛고 올라 올라 올라가

산바람도 만나고 강바람도 만나고

북쪽으로 가고 있는 새들도 만날 수 있게(얼쑤!)

남쪽으로 가고 있는 새들도 만날 수 있게

연줄에 연을 층층이 이어 달고

바람따라 나는 연아 멀리 멀리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얼쑤!

난 네가 좋아 정말 난 네가 좋아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너는 특별해 네가 자랑스러워 너만보면 난 행복해져

1 동그란 얼굴 조잘조잘 신나는 네 이야기 모두모두 맘에 들지만

너와 나의 마음속에 핀 우정이란 아름다운 꽃

2 듬직한 어깨 큰 웃음소리 노력하고 도전하는 네 모습

후렴 난 네가 좋아 정말 난 네가 좋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너는 특별해 네가 자랑스러워 너만 보면 난행복해져

바람이 불면 나무는 노래해

초록빛 팔벌려 스르르르 또르르르 스르르

이슬비 가랑비 잎새에 흐르면

맑은 노래 불러요 스르르르 또르르르 스르르

스르르르르 또르르르르 스르르

스르르르르 또르르르르 스르르

햇살이 쉬어가는 가지 그늘아래

새들도 모여앉아 다함께 노래해요

스르르르르 또르르르르 스르르

스르르르르 또르르르르 스르르

마음을 열고서 속삭여주면

나무의 노래를 들을 수 있죠

1 우리집 웃음소리 하하호호

서로 정답게 살아가는 행복한 웃음소리(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분 좋은 소리(랄랄라)

아빠는 우리들이 귀여워서 하하하

엄마는 나를 보고 신이 나서 호호호호

나는 나는 우리집이 좋아서 히히히히히히

나는 나는 우리집 웃음대장 헤헤헤헤

우리집은 행복합니다

2 우리집 웃음소리 하하호호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즐거운 웃음소리(랄라)

서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기분 좋은 소리(랄랄라)

아빠는 우리들이 예뻐서 하하하

엄마는 나를 보고 즐거워서 호호호호

나는 나는 우리집이 행복해서 히히히히히히

나는 나는 우리집 웃음대장 헤헤헤헤

우리집은 행복합니다(랄랄랄라)

우리집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묻죠 뭐가 되고 싶냐고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너무 많은데

내가 크면 무엇이 될까 정말 너무 궁금해

생각만큼 내 키만큼 키워 갈거야

저 푸르른 숲을 봐도 크고 작은 나무가

아름다운 숲 들을 만들어가죠

우리 꿈을 하나 둘 셋 넷 모아

이 세상을 더 밝게 할래요

우리 꿈을 하나 둘 셋 넷 모아

이 세상을 더 밝게 할래요

1 시간 은행이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네

학원 차 기다리는 오분 모아뒀다 늦잠 잘 때 쓰고

엄마 잔소리 듣는 시간 구겨 두었다(랄랄라)

친구 놀러 왔을 때 펴서 쓰게

꿈을 꾸는 시간 은행이 정말 정말 있다면

룰루 랄라 하하 호호 즐거울 텐데

2 마음 은행이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네

받아쓰기 백점 웃음 숨겨뒀다 우리 동생 주고

새실새실 우리막내 미소 쌓아 두었다(랄랄라)

우리 아빠 어깨에 올려주게

꿈을 꾸는 마음은행이 정말 정말 있다면

룰루 랄라 하하 호호 즐거울 텐데

윙윙 거칠고 험한 산을 날아가지요

윙윙 머나먼 나라까지

꽃을 찾아서

윙윙

조그만 날개

고단하여 너무 지쳤지마는

쉬지 않고 날아가지요

윙윙 거칠고 험한 산을 날아가지요

윙윙 머나먼 나라까지

꽃을 찾아서 야야야!

오늘같이 기쁜 날 내 마음 가득 담아서

그대 가슴에 사뿐히 안겨드립니다

꽃처럼 언제나 예쁜 얼굴

꽃처럼 언제나 웃으세요(오오오)

이 기쁨 영원히 간직하여

행복한 미래를 꿈꾸세요

오늘같이 기쁜 날 내 마음 가득 담아서

그대 가슴에 사뿐히 안겨드립니다

노을이 피어나는 그림 속을 거닐면

내 마음은 노랗게 피어나는 달맞이 꽃

갈래 머리 흔들며 미소 짓던 내 친구야

따뜻한 손 마주 잡고 그림 속을 날아오르면

너의 예쁜 눈망울은 하늘 가득 별이 되고

너의 예쁜 볼우물이 내 마음에 달로 뜬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교실바닥에 둘러앉아

아까 못 다했던 공기놀이 한판 다시 시작 된다

1단이 지나고 2단도 지나고 3,4단도 무사통과

마지막 꺾기만 남겨두고 있는데 제발~

내 손등에 올려진 다섯 개의 공깃돌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 모두 숨죽이네

내 가슴은 두근 입은 바짝바짝 도전 해본다

앗싸 내가 이겼다

새가 되어 날아볼까 먼 하늘까지

물이 되어 돌아볼까 먼 바다까지

해가 되어 비춰볼까 온 세상을

산이 되어 지켜볼까 고운 풍경을

이것저것 너무나도 할게 많구나

생각속에 생각속에 자꾸 빠져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봐야지

끝없이 뻗어가는 나의 고운꿈

땅에 꽃이 피어 있을-땐 물방울을 떨어뜨려 꽃잎 위에 내려 앉-아 꽃과 이야기 나누고

추운 겨울이- 되면-은 꽃이 없는 것이 싫어 겨울 하늘은 눈-꽃 하-얀 눈송이 뿌려줘요

겨울에도 꽃이 있-다고(랄랄라) 봄 보다 더 많이 있-다고(랄랄라)

마음까지 하-얀(랄랄라) 겨울 천사 마음이-래요

겨울에도 꽃이 있-다고(랄랄라) 봄 보다 더 많-이(랄랄라)

마음까지 하얀 착한 맘 겨울 천사 마음이래요

\*우리 모두 마음까지 하얀 눈처럼 하얀 착한 맘 겨울 천사되어 볼래요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 버들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 버들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 시내에 얼음이 다 풀렸다.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 잔디가 파랗게 돋아난다.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 산나물 캐러들 올라간다.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 제비가 물 차고 날아든다.

저 높은 하늘 위엔 누가 있을까

푸른빛 안개가 떠오르는

새하얀 물결위로

뜨거운 햇살을 뚫고 날아가 볼까

그곳을 찾아서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별보다 더 빨리

구름보다 더 높게

으아아아앙~

싫어 병원 안갈래요~ 아아앙~

혹시 산타할아버지 얘기 알고 있니?

아니요..? 그게 뭐에요?

그건 말이야~

우와! 호빵이다!

팥! 야채! 호빵 하나 주세요!

뭐~~?? 야채! 팥!

호빵 호빵 호호호 호빵 호빵

호빵 호빵 호호호~호빵 호빵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언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인디언

열 꼬마 인디언 보이~

열 꼬마 아홉 꼬마 여덟 꼬마 인디언

일곱 꼬마 여섯 꼬마 다섯 꼬마 인디언

넷 꼬마 셋 꼬마 두 꼬마 인디언

한 꼬마 인디언 보이~

별이 반짝이는 밤

꿈나라 갈 시간

오늘은 또 어떤 멋진 여행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

별이 반짝이는 밤

세수를 하고

예쁜 잠옷 갈아입고서 이제 출발

하고픈 게 있지만

부끄럽고 숨고 싶고

자신 없어질-때-가있지

그럼 외쳐보는거야-이 주문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할 수 있어

초코초코 초코초코

초코초코 초코♡

기분 좋아 웃을 땐 초코초코초코초코

속상해 슬플 땐 초코초코초코초코

포근하게 안아줘 초코초코초코초코

제일 좋은 내 친구 초코초코초코초코

다들, 춤 출 준비 됐나?

오케이~!

오빠 오빠 오빠야

여기 여기 모여

언니 언니 언니야

여기 여기 모여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내 마음이 뿅뿅! 콩닥콩닥! 뿅뿅!

네가 너무 좋아 (좋아! 좋아!)

너만 보면 뿅뿅! 함께라서 뿅뿅!

네가 진짜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난 밥 먹을 때 제일 신나!

맛있는 게 정말 많아!

오늘은 뭘 먹을까?

두부, 치킨, 볶음밥!

요~리 나갑니다!

요~리 맛있겠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되고 싶어요! x2

내 맘대로 장난감도 사고

내 맘대로 안 자고 싶어

커서 어른이 되면 x2

커피도 마시고 운전도 하고

매일 웃을 거야

하나 둘 셋!

밤하늘 별처럼

세상을 밝힐래

신나게 춤추어서~

환한 웃음 줄게

멀리 있어도~

따스한 빛이~ 너에

오늘 밤은 무지개 파티, 친구들 모두 여기 모-여-

알록 달록 예쁜 옷 오늘 위해 준비 했-어-

무지개 빛 조명 아래 나비처럼 춤 춰

나 손꼽아 기다려온 Party, 심장이 콩닥콩닥!

가끔은 싸우고 토라져 등돌리기도 하지만

동물 여러분

동물 목욕탕으로 오세요

와아 목욕하러 가자~

머리 어깨 무릎 다리 다리 다리

머리 어깨 무릎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머리 어깨 다리 다리

흔들 흔들 다리 목욕해

개미!~ 베짱이!~

나 밥 먹여줘! 나 가방 챙겨줘!

스스로~스스로 헛! 둘! 헛! 둘!

오잉?

스스로 한발 (폴짝)

얘~ 친구야, 이리와~

안돼요!! (no!)

소중한 내 몸

싫어요!!

누군가 만지려고 할 때

힘차게 소리쳐요

도와주세요!!

나와라!

추적의 거울!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가 누구지?

니 뭐하노?

그야 바로 바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말하는데

나는 멋져~

로큰롤~ 어린이!! 이야~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어린이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어린이날! 예~!

날 꼬마라 부르지마 (부르지마)

난 의젓한 어린이니까!

여보세요? 의사 선생님이시죠?

네! 저는 Dr. 파파독 입니다

아니 글쎄~ 저희 집 아이들 말이에요

다섯 꼬마 원숭이 침대 위에서

깡충 깡충 뛰다가 떨어졌대요

깜짝 놀라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빨간 사과 초록 사과

아삭아삭 그 사과 말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내 마음을 담은 사과야

너의 눈을 보고 말하고 싶어

이젠 내 마음을 받아 줄 수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과자

어쩌면 마녀의 위험한 독 사과

모르는 마녀의 빨간 독 사과

공주님 왕자님 먹지 마요

먹지 마요

냥! 냥냐냥!

냥! 냥냐냥!

냥! 냥냐냥! 할 수 있다! 냥냥!

냥! 냥냐냥! 힘내라 냥! 냥냥!

냥! 냥냐냥! 힘난다 냥! 냥냥!

오~~~ 3 2 1!